

# 추석 물가 비상 ... 폭염 여파

올해 추석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날 내놓은 '농정포커스-2018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을 통해 올여름 폭염 여파로 농·축산물 생산성이 지난해보다 악화돼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



▲ 지난여름 폭염 여파로 올 추석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과일 상점 모습

품목별로는 과일 가격이 출하량 감소 여파로 크게 될 전망이다.

사과(5kg)와 단감(10kg)이 지난해보다 각각 33%, 112% 오른 3만5,000~3만8,000원이 될 것으로 봤다. 배는 58% 급등해 7.5kg 상자당 2만7,000~3만원으로 예측됐다.

채소의 경우 무 가격이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높은 20kg당 2만4,000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반면 배추는 고랭지배추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낮은 10kg당 1만2,0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햄살은 조생종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25% 높은 4만8,000원, 밤은 생산물 감소에 따른 재고물량 조기 소진으로 5~9% 상승한 1kg당 7,200~7,6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와 계란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를 전망이다. 한우 1등급(지육 1kg)의 평균 도매 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1만8,500~1만9,500원, 계란(특란 10개)의 평균 산지 가격은 1,350~1,450원으로 예측된다.

반면 돼지(탕박 1kg)는 도축 마릿수 증가로 지난해(4,503원)보다 하락한 4,100~4,400원이 될 전망이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과 국지성 폭우로 농축산물 생산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올 추석은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빨라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곤 가격이 일제히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기 출하 물량을 확대하는 등 추석 성수기 전까지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가격 강제는 불가피하리라는 것이 시장 분위기다.

# 병무청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의 '병역 특례' 문제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병역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3일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병역 의무 형평성과 관련한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긋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대자 감소로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 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병역기준을 더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병무청 입장이다.

다만 국방부는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향후 병무청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

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외에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경찰청과 상무야구단 입대를 포기하고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의 기회로 악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행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손흥민, 오지환은 되고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은 왜 안되냐"는 등 병역특례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반면 "선수들이 한창 몸값을 올리고 뛰어다닐 시기에 병역 때문에 발목을 잡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군 복무를 앞두고 있는 한 대학생은 "예·체능 계열만 특례 혜택을 주는 것은 불평등"이라며 "'국위 선양'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인재가 있는데 왜 예·체능에서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 빅토리 바디샵

##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 ✓ 최신 프레임 머신에 의한
- ✓ 정확한 프레임 교정
-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 Towing & Rent Car 알선
- ✓ FREE ESTIMATE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